

사립정당인이다! 원장직인 김동영으로 당선될 조대환이다.

임평다이내스티CC 컨트리 클럽

- 광주 - 동광명1CC 구간 광복 동행드 캠프 (당첨후환영1CC 영수증 프린트 개시)
- 우천시 9월 이후 출발요금정선제 실시
- 예약 : www.hpdyashy.co.kr 0801-320-7700

광주일고 손명기 만루포... 8강 안착

함평다이내스티CC 회원권 파격 특전



VIP 회원 경우

지명회원 1명 그린피 면제 동반자 3인에 준회원 대우

4개월 양잔디 골프장 함평다이내스티CC가 9월 증설과 더불어 새롭게 변모하면서 분양중인 다양하고 파격적인 특전을 갖춘 회원권이 골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함평다이내스티CC는 기존 18홀에 오는 10월 추가 9홀 공사 마무리에 맞춰 다양하고 파격적인 조건을 갖춘 VIP(1억5천만 원), GOLD(5천만 원) 회원권을 분양중인데 벌써부터 신청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 분양중인 VIP, GOLD 회원권은 호남의 어느 골프장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하고 파격적인 특전을 부여했다.

VIP회원의 경우 ▲월 4회(부킹자 정회원) 주말 부킹 ▲정회원 1명 그린피 면제(주중/주말), 동반자 3인 준회원대우(주중/주말, 회수 제한 없음) ▲지명회원 1명 그린피 면제(주중/주말, 정회원 동반 관계없음), 동반자 3인 준회원대우(주중/주말, 년 30회) ▲정회원 및 동반자 3인 골프텔 40% 할인 ▲준회원 대우 주중(8만 원), 주말(11만 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 전국 어느 골프장에서 누릴 수 없는 차별화된 특전으로 지명회원 1명에 그린피 면제(주중/주말, 정회원

동반 관계없음), 동반자 3인 준회원대우(주중/주말, 연 30회)와 무기명카드 소지자 그린피 면제, 동반자 3인 준회원대우(주중/주말, 년 20회)중 택일 할 수 있게 해 회원들에게 맞춤 선택을 하도록 했다.

GOLD 회원은 ▲주말부킹 월 2회(부킹자 정회원)▲잔여부킹 우선 배정 ▲정회원 1명 그린피 주말 준회원대우, 주중 그린피 면제 ▲정회원 및 동반자 3인 골프텔 30% 할인 ▲준회원대우 주중(8만 원), 주말(11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GOLD회원의 특전 중 지명회원 1명에 주중 그린피 준회원대우, 주말 정회원 동반시 준회원대우를 해주는 차별화된 특전은 어느 골프장 회원권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된 특전이다.

이준희 함평다이내스티CC 대표는 "이번에 분양중인 회원권은 어느 골프장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하고 파격적인 특전을 갖추고 있어 골퍼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특히 지명회원과 무기명카드에 대한 특전은 전국 어느 골프장에서 볼 수 없는 함평다이내스티CC만의 맞춤형 특전이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2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15회 무등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4일째 16강전 대구상원고-청원고 경기. 8회말 몸에 맞는 볼로 진투한 상원고 라준성(왼쪽)이 박효일의 희생번트 때 3루까지 진투하다 태그아웃되고 있다.

제15회 무등기 고교야구

대회 4일째

제15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광주일고와 진흥고의 경기에서 만루홈런을 앞세운 광주일고가 6-2로 8강에 올랐다. 청원고는 연장 승부 끝에 상원고에 4-2로, 부천고도 화순고에 역시 4-2, 서울고는 부산공고에 8-1로 8회 풀드게임 승을 거둬 8강대열에 합류했다.

광주일고 6-2 진흥고

12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벌어진 대회 4일째 16강전에서 '우승후보' 광주일고가 손명기의 만루홈런으로 진흥고를 6-2로 제압했다.

1회 광주일고는 선투타자 정승인의 안타와 허경민의 2루타를 터트리며 진흥고 선발고영창을 조기 강판시켰다. 연속 4사구로 선취점을 뽑은 1사 만루, 손명기가 김정훈을 상대로 우측 담장을 넘기는 만루홈런을 터트리며 순식간에 5-0이 됐다.

이후 진흥고는 광주일고 선발 장민제를 상대로 6개의 안타와 5사구를 얻었지만 2점을 뽑는데 그쳐 승부를 뒤집는 데 실패했다. 프로야구 KIA타이거즈의 1차 지명을 받아 계약을 끝낸 광주일고의 정성철은 9회 구원 등판해 3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에이스의 면모를 과시했다.

청원고 4-2 상원고

청원고는 상원고와 12회 연장접전을 벌인 끝에 4-2로 역전극을 펼쳤다.

투수전이 전개되던 5회말 청원고가 먼저 2루타와 적시타를 맞으며 1점을 내줬다. 7회 1사 1·3루에서 나온 폭투로 0-2가 된 8회, 앞선 7회까지 상원고 선발 김민찬의 위력에 밀려 8개의 삼진을 당한 청원고가 반격을 시작했다.

8회 선투타자 조현수가 우전안타로 출루하면서 상원고의 투수가 이성훈으로 교체됐고, 2사 1·3루에서 지영완과 김정수가 나란히 적시타를 터트리면서 2-2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서울고 8-1 부산공고

서울고 타선의 집중력이 돋보였다. 서울고는 4·6·7·8회 2점씩을 뽑아 8-1로 가볍게 8회 풀드게임 승을 거뒀다.

한편 지난 11일 야간경기로 펼쳐진 동성고와 부경고의 16강전에서는 13개의 안타로 일방적인 공격을 펼친 동성고가 8-0으로 7회 풀드게임 승을 거두고 8강에 진출했다.

☞김어룡기자 wool@kwangju.co.kr

화순 결정적 실책 2개 '으악'...부천에 패

연장 승부에 돌입한 청원고는 12회 마지막 공격에서 조현수의 3루타와 조근종의 결승타를 바탕으로 4-2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결승타 주인공 조근종은 6과 3분의 이닝 동안 1피안타 1실점으로 호투하며 승리투수가 돼 8강 진출의 수훈자가 됐다.

타를 맞은 후 유휘봉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허용했다. 7회 1점을 더 내주며 2점 차로 쫓겨간 부천고는 이어진 7회말 공격에서 화순고의 실책 2개를 묶어 역전극을 펼쳤다. 1사 2·3루에서 5번 김덕길의 안타가 나오면서 3루 주자 김진용이 홈을 밟았다. 이때 두 개의 악송구가 나오면서 2루 주자 장영석에 이어 타자 김덕길까지 홈인하면서 점수가 3-2로 뒤집혔다. 7회부터 마운드를 넘겨 받은 부천고의 장영석은 2와 3분의 2이닝 동안 1피안타 2탈삼진으로 팀의 점수를 지키며 승리투수가 됐다.

화순고 2-4 부천고

부천고도 화순고에 4-2로 역전승을 거두고 8강에 합류했다.

부천고는 3회 화순고 8번 김재욱에게 2루

반가운 옛 '해태맨'들 한자리에

이순철·박철우·장재근·신동수 등

모교·아들들 응원하며 정담 나뉘

제15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가 열리고 있는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는 프로야구 스타들을 만날 수 있다.

전·현직 프로야구 스타와 관계자들이 모교 후배나 아들이 뛰는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을 찾았으며 관객들은 경기 관전과 함께 스타들을 만나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다.

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광주무등경기장 야구장에는 대회 첫날인 지난 9일부터 이순철(우리 히어로즈 수석코치), 박철우(전 KIA 타이거즈), 장재근(우리 히어로즈 베테랑코치), 홍현우(전 KIA), 신동수(전 KIA) 등 전·현직 프로야구 스타들이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모교 후배나 아들의 플레이를 보기 위해 야구장을 찾았다. 또 이번 대회에는 프로야구 스타나 프런트 직원의 아들이 대거 참가해 '부전자전'의 실력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성근(경기고 2년)은 이순철 전 LG감독의 아들이 이번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무등기스타 광주일고 손명기

"생애 첫 만루홈런 너무 기뻐요"



"생애 첫 만루홈런을 쳤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기쁩니다."

12일 광주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15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16강전 광주일고와 진흥고의 경기에서 만루홈런을 터트리며 팀 승리를 이끈 광주일고 손명기(3년)는 "경기를 찾은 아버지, 어머니께 큰 선물을 드린 것 같아 더욱 기쁘다" 소감을 밝혔다.

서석초등학교를 졸업한 손명기는 1m80cm, 80kg의 건장한 체격에 광주 지역에선 흔히 볼 수 있는 2개와 3할대를 기록한 공격형 포수다. 특히 손명기는 포수로서는 보기 드문 우투 좌타자다.

광주일고 선배인 김상훈 KIA 타이거즈 포수를 존경한다는 손명기는 몸쪽 높은 볼을 좋아하는 전형적인 풀 히터로 이날 1사 만루에서도 몸쪽 높은 볼을 놓치지 않고 우측 담장을 넘겨 대회 3호이자 첫 만루아치를 그렸다.

스스로 수비형이 아니라 공격형 포수라고 말하는 손명기는 이번 대회에서 광주일고의 투수진이 워낙 좋아 리드를 잘 해 반드시 무등기를 품에 안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손명기는 KIA 2차지명을 받기가 쉽지 않아 프로야구 LG나 두산의 지명을 소망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봉주 컨디션 최종 점검

15일 삿포로 하프마라톤 출전

국민 마라톤러 이봉주(38·삼성전자)가 15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열리는 삿포로 국제하프마라톤대회에 출전, 컨디션을 점검한다.

4월 말부터 대전 계족산과 강원도 횡계를 오가며 체력 및 스피드 증강 훈련을 펼쳐온 이봉주는 지난 2일 삿포로 인근 지토세에 캠프를 차리고 대회를 준비 중이다.

이봉주는 지난해 두 차례 하프 마라톤을 뛴 뒤 서울국제마라톤대회에서 2시간38분04초 우승했다.

그는 당시 경험을 되살려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이번 하프 마라톤에서 페이스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출전한다.

이번 대회에는 올림픽에서 기량을 겨룬 경쟁자들도 대거 출전해 자존심 경쟁도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일본 올림픽대표 3인방 사토 아쓰시, 오가타 쓰요시, 오자키 사토시가 모두 나서며 올해 도쿄마라톤에서 2시간27분23초로 우승한 유럽의 1인자 빅터 로슬린(스위스)도 뛴다.



올해로 51회째 맞는 삿포로 국제하프마라톤대회는 날씨가 시원하고 코스도 평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록이 생산되는 대회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남녀 우승 기록인 59분54초, 1시간8분22초는 모두 한국 최고 기록을 앞선다.

남자 한국 기록은 이봉주가 1992년 도쿄 하프마라톤대회에서 세운 1시간1분04초이고 여자부는 이은정(27·삼성전자)이 3년 전 베를린 하프마라톤대회에서 작성한 1시간11분15초다.

한편 이명승(29·삼성전자)과 이은정도 이번 레이스에서 훈련 성과를 되짚어볼 예정이다.

4강전부터 입장료 무료... X-ports 생중계

무등경기장 야구장, 야구팬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15일(日) 오후 2시, 6시 4강전, 16일(月) 오후 6시 결승전